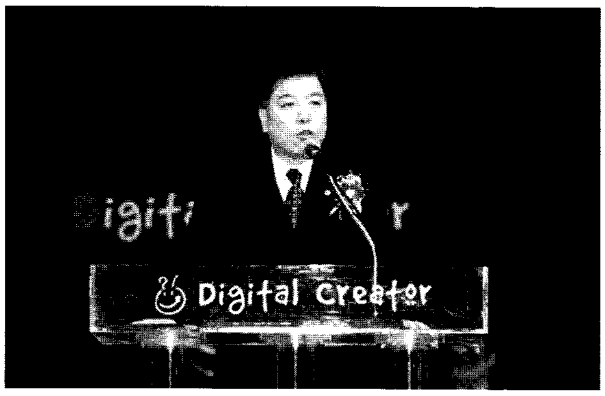
특허청 '2003 전국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개최

특허청은 지난달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추억이 될 '2003 전국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를 코엑스(COEX)에서 개최하였다.



▲ 지난달 11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03 전국학생 창의력올림피아드' 시상식에 참석한 김광림 특허청장의 모습.

특허청(청장 김광림)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학교발명협회(회장 김두선)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85개팀 573명의 학생들이 한데 모여 팀간의 협동심을 바탕으로 장기과제와 현장과제를 풀면서 각각의 창의력과 상상력, 모험심을 마음껏 발휘, '남과 다른 나', '함께 하는 나'의 조화인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개최된 종합 창의성 경진대회이다.

금년으로 두 번째 개최된 이 대회의 특징은 5~7명의 학생들이 1팀으로 참가하여 과학, 수학, 음악, 미술, 공작기능 등 종합적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전에 주어진 과제(장기과제)와 대회 현장에서 주어지는 과제(현장과제)의 해결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형식으로 치러지며, 미국에서 매년 5월에 열리는 '세계 청소년창조성 경진대회(DINI)'에 원형을 둔 학생 종합창의성 경진대회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팀에게 장기과제로 기술적 변신, 연결구조물, 라이브 공연 중 한 종목을 선택하여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대회장에서 주어지는 현장과제를 팀별 협동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회 기간동안 창의력 퀴즈대회, 신나는 마술 배우기, 게임왕을 찾아라, 에어로켓 경연, 디지털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등 다양한 창의력 이벤트가 펼쳐졌다.

시상식은 대회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5시에 개최되었고, 이날의 대상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은 고등학교 부문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메카, 초등학교 부문에 오정초등학교 지니어스에게 돌아갔다. 이들에게는 오는 5월에 미국 테네시주립대학에서 개최될 제24회 'DINI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 분쟁 지난해 50~60건에 달해

한솔CSN의 전자상거래 관련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계기로 BM특허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솔이 취득한 특허는 특정 기술이나 상표를 통한 자산 개념의 특허가 아니라 이미 업계에서 통용되는 마케팅 방식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낡은' 아이디어를 마치 새로운 기술인양 특허를 내줬다는 것이 LG이숍, 옥션, NHN 등 인터넷쇼핑몰과 포털 사이트 업체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특허청 관계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업계에 보편화될 정도의 BM이라면 원천특허로 볼 수도 있다"며, "그런 만큼 특허권은 더욱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쇼테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BM특허를 취득하고 다단계 판매업체 암웨이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BM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때도 논란의 초점은 이미 일반화된 마케팅 수단을 특허로 인정해줬다는 것이었다.

최근 정보기술(IT)경기침체로 BM특허 출원건수는 감소세를 타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BM관련 분쟁건수는 99년 6건에서 2000년에는 12건으로 늘어났고 2001년에는 36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50~60건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IBM, 특허 획득 1위 자리 10년째 지키고 있다

지난달 13일자 뉴욕타임즈는 미국 특허상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특허를 인정받은 세계 10개 기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IBM이 지난해에도 미국에서 3,288건의 특허를 따내 최대 특허 획득 기업의 자리를 10년째 지켰고 2위 기업은 일본의 캐논(1,893건), 3위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1,833건), 4위는 일본의 NEC(1,821건), 5위는 일본의 히타치(1,602건)였다. 이어 일본의 마쓰시타(1,544건), 소니(1,432건), GE(1,416건), HP(1,385건), 일본의 미쓰비시(1184건) 등의 차례였다.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삼성전자와 일본의 후지쓰가 10대 기업명단에서 사라졌고 대신 제너럴일렉트릭(GE)과 휴렛패커드(HP) 등 미국의 2개 기업이 10위권에 새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2001년에 일본기업 7개, 미국기업 2개, 한국기업 1개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일본기업 6개, 미국기업 4개로 미국기업 비중이 커졌다.

최근 수년간 미국 내 10대 특허출원기업에 포함됐던 삼성전자가 지난해에는 10위권에서 밀려났다. 삼성전자는 2001년에 특허상표국으로부터 1,450건의 특허를 인정받아 연간 특허를 가장 많이 받은 10대 기업 중 5위 기업이었으며, 1990년대에 활발한 특허출원을 통해 주로 4~6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특허출원 실적은 2~3년전의 국내 외환위기로 인하여 이 부문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면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위를 차지했지만 10위인 HP가 컴팩과 통합 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0위권 안에 드는 성적"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특허기술 경쟁입찰 실시

정부지정 기술거래기업인 피엔아이비(대표 강인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유한 이동통신분야 특허기술 130여건의 거래를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중개했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이번 기술거래는 제반 권리의 완전양도가 아닌 권리지분의 50%만을 부분 양도하는 방식이다. 피앤아이비는 이번 기술들의 부분양도는 특허실시권만 양도받는 방식에 비해 외국 단말기업체들과의 특허분쟁이나 기술료 협상 등에서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 대상이 된 130여 건의 특허기술들은 총 5개 그룹으로 분류돼 각 그룹별 경쟁입찰에 의해 실수요자인 국내 단말기업체들에 매각됐으며 매각대금은 약 4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를 기획한 피엔아이비 강인규 대표는 "기술이전촉진법 시행 후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업체로 이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기술거래 전문기관 등이 활발한 기술상품개발과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기술거래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